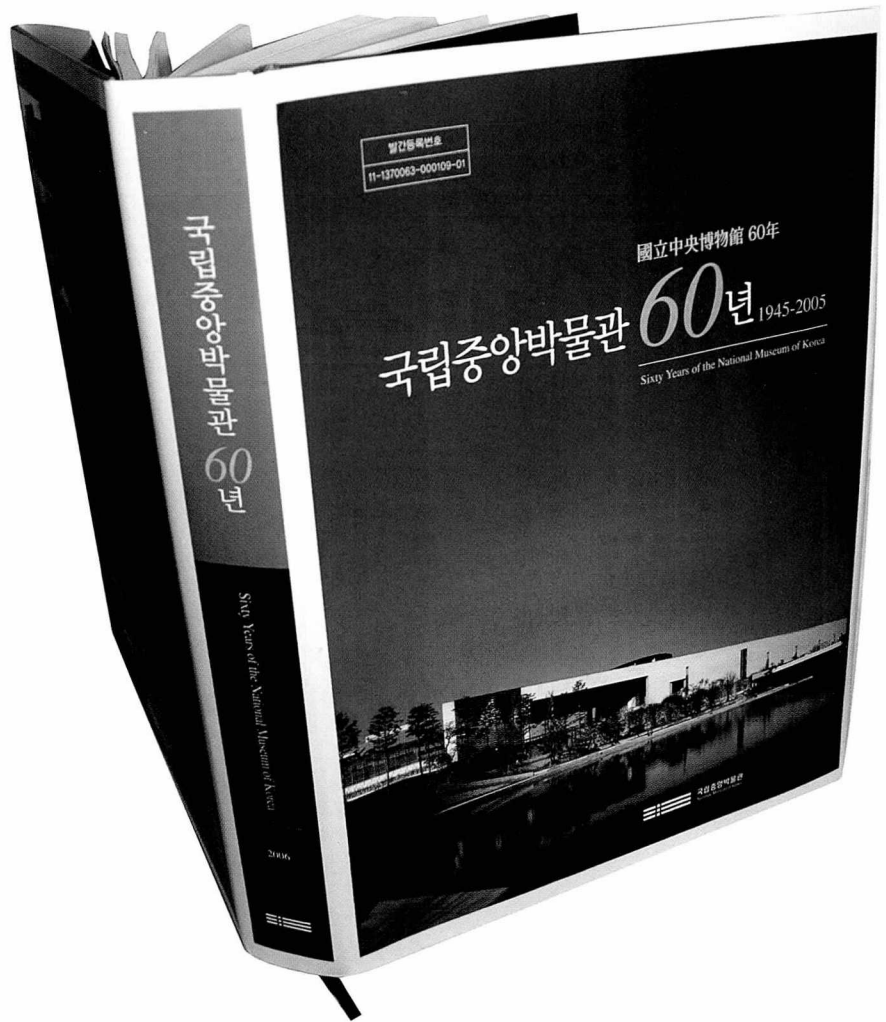


역사 한눈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이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60년 역사를 담은 '국립중앙박물관 60년사(1945-2005)'를 발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60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60년 역사를 풍부한 사진자료와 학술자료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책은 1945년에서부터 1955년까지 '경복궁~남산시기'에서부터 덕수궁시기, 경복궁 2기, 경복궁 3기, 경복궁 4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는 1996년 개관 50주년 '국립박물관 50년 발자취' 특별전의 자료들과 2005년 10월 28일 용산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60년'의 자료들을 취합하고, 그 당시 발간된 도록 '겨레와 함께 한 국립박물관 60년'을 역사서로 재편집해 엮은 것이다. 2005년 발간에 정이었지만, 개관 및 축하행사들로 미뤄져오다가 2006년 4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 1년만이 지난 4월 그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우리문화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상세히 담겨 있어 그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민족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 걸어온 길

국립중앙박물관의 개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광복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도 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군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해 12월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경복궁 1기 본관건물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개관한 것이다. 이는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과 역사의 복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찾고, 정체성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박물관장을 맡은 김재원 관장은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관리되던 박물관의 영역들을 대부분 회수하고,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면서 유물들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당시 박물관 개관과 그 노력들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군정청에서는 우리강산의 고대미술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3일에는 국립박물관을 열어 일반에 관람시키는

한편 작일일은 특별지정 제이십일호로서 미술품과 고적 보존물을 손상시키거나 마음대로 이동하는 자에는 벌금과 체형을 처한다고 발표하여 미술품과 고적보존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적극협력을 구하고 있다”

- 1945년 12월 3일, 동아일보

분관을 마련해 중앙과 지방박물관 체제로

책에는 지금의 박물관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

“광복 이후 총독부박물관을 접수한 국립박물관은 지방에 네 개의 분관을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박물관 체제로 시작하였다. 즉 국립박물관 김재원 관장을 비롯하여 부여분관장 홍사준, 경주분관장 최순익, 공주분관장 유성중, 개성분관장 이농재가 임명됨으로써 중앙과 지방 박물관의 위치를 명확히 확립하려 했다.”

당시 박물관은 문화과 예술계 소관이였다. 그러나 이듬해 문화과가 박물관-도서관계, 예술계, 레크레이션계, 종교계로 4계로 나누면서, 국립박물관은 박물관-도서관계로 분류되게 된다. 각 분과들은 중앙박물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제와 일본으로부터 유물 접수를 통해 유물환수를 받는 것은 물론, 1949년 ‘대일현물 배상요구 1차 목록’을 제출해 미술품, 서적, 골동품 약 1천여 종을 환수했다.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중앙박물관은 유물을 되찾는 노력과 함께, 이런 유물들을 제대로 보관

하고, 복원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각 유물의 특성에 맞는 조명과 습도 등 보관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이동시나 전시시에 유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했다. 책에서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성어린 노력들에 대한 기록들도 찾아 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보관 이외에도 일반인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상설전시, 기획전시, 특별전시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강좌를 열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유물들에 접근하고, 그 당시 시대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되어 전시된 많은 전시들이 책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거울, 등대가 될 것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김홍남은 이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은 준비 기간이 짧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한편으로 60년이 지나도 제대로 된 박물관의 역사 책 하나도 간행하지 못한 부끄러움에서 해방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리고 “이 책이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거울, 등대의 역할을 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발간될 새 박물관사의 정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그의 말처럼, 책은 지금까지의 국립중앙박물관이 걸어온 길을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시도 하고 있는 듯하다. 박물관사에 궁금중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사료가 될 듯하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

